

한국BASF, 임재영 스페셜티부문 사장 선임



한국BASF 임재영 사장

한국BASF가 스페셜티 사업부문장에 임재영 사장을 선임했다고 1월1일 발표했다.

임재영 사장은 코오롱을 거쳐 1999년부터 한국BASF, BASF 홍콩법인 및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업을 총괄한 바 있다.

사장 인사는 스페셜티 사업부문장이었던 이만우 사장이 중국 상하이(Shanghai) 소재 BASF 건설화학 사업담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루어진 것으로, 임재영 신임 사장이 담당했던 인사부문장에는 변완수 부사장이 선임됐다.

변완수 부사장은 한화그룹과 한화BASF를 거쳐 한국BASF의 폴리우레탄(Polyurethane) 및 화학사업 부문에서 영업을 담당했다.

<화학저널 2012/01/02>